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홈페이지 www.uca.or.kr • 전화 031-850-1400(대표)

124위 복자

복자 김화춘 야고보

(? ~1816)



김화춘 야고보는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나 보령으로 이주해 살았다. 1839년 순교한 김대권 베드로가 그의 형이다. 온순하고 참을성이 많았던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교리를 배웠으며, 기도과 성경 읽기에 힘썼다. 이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상도 청송으로 이주하였다.

1815년 을해박해 때 체포된 그는 경주와 대구에서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나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당시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김화춘은 아버지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워 대대로 죄악을 저질러왔다. 모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로, (천주교 교리를) 귀로 전해듣고 입으로 외우면서 그 사악한 말을 깊이 믿었다. 여러 차례 형벌과 문초를 당하면서도 죽기를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으니, 그 요사하고 사악함이 아주 지극하다.”

김 야고보는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는데, 그때가 1816년 12월 19일이었다. 그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3월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거두어져 적당한 곳에 안장되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30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탈출 22,20-26

화답송

시편 18(17),2-3 7.3ㄴㄷ-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1테살 1,5ㄴ-10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마태 22,34-40

영성체송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쓰레기”(필리 3,8)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신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했기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을 염려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공동체는 한 곳, 필리피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시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 3장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말하면서, 육적인 점에서 말한다면 자신이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충실한 유대인이었고 흠 없이 율법을 지켰으며,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교 신자로서 이러한 점들을 자랑한다면 바오로보다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모두를 해로운 것으로, 쓰레기로 여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필리 3,10). 그저 고난에만 동참하고,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해서 가치 있고 소중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피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필리 2,6-11의 찬가 참조).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이를 본받는 것, 곧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이 마음을 그들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자신이 죽음을 겪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본받듯이, 필리피 신자들도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셨으며 이제는 부활에 이르신 그분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필리피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분열은 있었고(필리 4,2-3 참조), 이기심과 허영심,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관습을 퍼뜨린다고 그를 모욕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의 하녀에게서 점 귀신을 쫓아내자 돈벌이를 못 하게 된 그 하녀의 주인이 바오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필리피 공동체의 신자들은 바오로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도 다른 이들이 와서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면 쉽게 넘어갔던 것에 비하여, 필리피 신자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진심을 믿었고, 그래서 사도는 두려움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 사도의 “기쁨이며 화관”(필리 4,1)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필리피 신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합니다. 🍈



교회가 본받아야 할 마리아의 완덕

「교회헌장」 제65 항

「교회헌장」 제65항은 마리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본받아야 할 마리아의 완덕’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의회는 교회가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이미 완덕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미’ 종말론적 완성에 이르렀을 지라도 신자들은 ‘아직’ 죄를 극복하고 성덕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성덕을 갖추려면 ‘뿔힌 이들의 온 공동체에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시는 마리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순례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은 마리아를 본받으려는 여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자 할 때 마리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곧 교회가 자기 신랑을 닮아 가기 위해 마리아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로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받들라’고 합니다. 교회는 공경하는 마음으로(pie)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recogitare)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마리아를 묵상하고 바라보아야(contemplan) 합니다. 끝으로 ‘드높은 강생의 신비를 공경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 가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강생의 신비 속으로 경건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고,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 안에서 마리아를 묵상하여, 강생의 신비 속으로 경건하고 더 깊이 들어갈

때,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분과 일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께서는 구원 역사 안에서 구세주께 가장 탁월하게 협력하시어, 신앙의 최고 진리를 당신 자신과 결합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공경받으실 때, 당신 아드님의 희생과 성부의 사랑으로 신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모범이신 마리아를 닮아 가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릅니다.



교회는 사도직 활동에서 마리아의 신비를 바라보아야 한다.
루르드에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레오 교황 출처: OSV

결론적으로 교회는 ‘사도직 활동’에서도 마리아의 신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태어나고 자라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의회는 동정녀께서 당신 생애를 통해 그 모성애의 모범이 되셨기에, “교회의 사도직 사명 안에서 사람들이 새로 나도록 협력하는 모든 이”가 바로 그 모성애로 활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천상의 부드러움에 물들다

1858년 프랑스 남부 산골의 작은 마을 루르드 동굴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14세 소녀 베르나데트 수비루 앞에 발현하셨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훗날 마리-베르나르 수녀(Sr. Marie-Bernard)가 된 베르나데트에게 여러 성모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그녀가 목격한 ‘아름다운 귀부인’과 가장 닮은 고르게 했는데, 이때 선택한 이미지가 바로 여기 소개하는 ‘캄브레의 은혜의 성모’입니다! 이콘(Icon)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화 전통을 바탕으로 비잔틴 교회에서 발전한 성화상으로, 하느님과 신자 사이를 이어 주는 ‘다리’ 또는 ‘창’과 같습니다. 1340년경 이탈리아 시에나(Siena)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비잔틴 미술의 엄격한 분위기와 이탈리아 회화의 인간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이탈리아-비잔틴 이콘’입니다.

현재 프랑스 북부 캄브레의 ‘캄브레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 삼위일체 경당’에 모셔져 있는 이 이콘은 프랑스 추기경의 비서관이자 참사관이었던 푸르시 드 브뤼이(Furcy de Bruille)가 추기경에게 선물 받아 고향 캄브레로 가져온 뒤, 1450년 세상을 떠나며 성당에 기증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이콘은 최초로 성모자상을 그렸다고 알려진 성 루카가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캄브레의 성모’는 15세기 유럽에서 성모자상의 중요한 본보기로 여겨져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천상의 고귀한 황금빛 공간에 성모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좌측에는 라틴어 약자로 ‘하느님의 어머니’(MR DI), 그리고 예수님의 우측에는 ‘예수 그리스도’(IHS XRS)라고 적혀있습니다. 성모님은 황금 선으로 장식된 다홍색 드레스에 푸른 망토(마포리온)를 두르고 있습니다. 망토에서 방사형으로 퍼지는 황금빛은 ‘하느님의 영광’과 ‘성령의 현현’을 상징하며,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성모님의 이마와 양쪽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금색 별은 성모님의 동정을 상징합니다.



‘캄브레의 은혜의 성모’(Notre-Dame de Grâce, Cambrai), 시에나(Siena)에서 그려짐, 1340년경, 목판에 템페라, 금, 캄브레 대성당, 프랑스 북부-파드칼레

성모님이 연약한 아들의 몸을 조심스레 떠맡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엄마의 둥근 턱을, 왼손으로는 망토 자락을 붙잡고 있는데 엄마에게 기어오르는 몸부림이 필사적입니다. 마치 혹독한 현실을 피해 엄마 품에서 안식처를 찾으려는 듯 느껴져 안쓰럽습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작은 얼굴은 연약함과 순수함을 드러내고, 아들을 향해 고개를 기울인 성모님에게서 깊은 사랑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얼굴과 볼을 맞대어 친밀하게 접촉하는 이콘의 유형을 일컬어 ‘자비의 성모’(엘레우사의 성모)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모성에 장면이 아니라 ‘육화하신 로고스(logos, 하느님 말씀)를 품은 하느님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신비를 드러냅니다. 서로의 얼굴을 맞댄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한 몸을 이룬 듯한 깊은 일치를 보여줍니다.

길고 곧은 눈썹과 날렵한 눈매, 길게 뻗은 코와 작고 붉은 입술, 우수에 젖은 성모님과 안간힘을 쓰느라 미간을 찌푸린 아기 예수님... 두 분의 은근하면서 강렬한 시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육화와 부활, 바로 ‘영원한 빛의 신비’로 초대합니다. ☸



교구 소식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1/6(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전시] 김기열 안젤라 개인전 「마음에 머문 풍경展」

일시 10/31(토)~11/13(금) 10:30~17시

장소 갤러리 평화(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월요일 휴관

〈안녕, 해나! 안녕, WYD 젊은이들!〉 - 인순이 세실리아와 함께하는 북토크

일시 11/10(화) 19:30~21:30

장소 에피파니아 청년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77)

대상 ① 청년 및 청소년 ② WYD 봉사자 및 홈스테이 신청 가정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12월(대침묵 피정)

주제 바오로 사도와 함께 걷는 신앙 여정

강사 김효준 신부

일시 12/4(금)~6(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 집

피정비 1인 20만원(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제10기 한국교회사강학회 수강신청

한국교회의 시작인 천진암 강학회를 기억하며, 한국교회사 강의 및 그룹 토의

일시 12/5(토)~6(주일) 9:30~17:30 (양일간)

장소 양주순교성지

인원 선착순 80명(선착순 마감) 회비 8만원

접수 10/19(월)~11/8(주일)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27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일시 수·금 14시~16:10 [주2회]

장소 신앙교육원 일산분원(백석동 성당)

과목 신·구약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교리

과정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 한 학기 4과목 12주간 수업

접수 선착순 100명 모집 (예약금 5만원)

회비 한학기 40만원(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6, 010-5578-4898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의정부교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의정부교구에서는 신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시 매월 넷째 주(주일) 14시~16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1층 사제집무실

문의 차진태 모세 변호사 010-3721-9144

※ 전화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10월 27일은故 이사응 안토니오 신부의

19주기입니다.



2027 WYD 의정부교구대회 영성운동 묵주기도 10억단 봉헌 운동

9월 의정부교구 봉헌 현황: 누적 10,690,773단 (10월 16일 기준)

전국 누적 611,788,323단
(총 달성률 61.18%, 979일째)



미사 · 피정 ▶▶

가정선교회 11월 피정

시간: 12:30~16:5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11/4(수) 윤민재 신부, 이현주 회장
 성모신심 첫토 미사와 토요피정: 11/7(토) 정대영 신부
 전인적인 치유피정: 11/21(토) 윤창호 신부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10/29(목)~11/1(주일)
 성경완독: 11/13(금)~21(토), 12/4(금)~12(토)
 나를 만나, 하느님을 만나다: 11/27(금)~29(주일)
 문의: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2026 성령쇄신 전국대회

일시: 10/31(토) 09시~17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시릴 존(CHARIS 위원)
 미사: 김운회 루카 주교(전 춘천교구장)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대상: 모든 교우
 문의: 02-777-3211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치유의 숲길: 11/21(토)~23(월), 12/4(금)~6(주일)
 추라도 성지순례: 11/26(목)~29(주일), 12/7(월)~9(수)
 동백꽃길: 1/15(금)~17(주일), 1/24(주일)~26(화),
 2/13(토)~15(월)

한라산 영실산행: 1/29(금)~31(주일), 2/19(금)~21(주일)
 산들말씀피정: 2/26(금)~28(주일)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알사: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0/27 이상기 회장, 11/3 김대영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길음동 성당 아가페 성령기도회

일시: 10/28(수) 18시~20:30, 소성전
 강사: 김대영 신부
 일시: 11/13(금) 10시~18시, 대성전
 강사: 이보파비치 신부
 문의: 010-9248-8151 (11/13 사전신청 필수)

전쟁 희생자를 위한 위령미사

일시: 11/6(금) 14시
 장소: UN군 화장장(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0)
 주최: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1/2(토)~3(일), 2차: 2/19(금)~20(토)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선착순) / 회비: 11만원(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11/6(금) 15:50(성시간 15시),
 19:20(성시간 18:30)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 16(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ICPE 흠숭기도회 - 이창진 아블레오 신부

일시: 11/1(주일) 15시,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주제: 치유 / 문의: 010-5320-0419 ICPE 플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첫토 성모신심미사

첫토 성모신심미사
 일시: 11/7(토) 9:20~11:30 (10:30 미사)
 장소: 의정부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교구 청년 찬양 피정

일시: 11/13(금) 20시~22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주제: 교구 청년 찬양 피정
 찬양: DES Worship, 성바오로딸수도회
 내용: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며 찬양하는 기쁨'
 대상: 청년(만 18~45세)
 회비: 무료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 채널
 ※ 11월 성바오로딸수도회와 함께하는
 찬양 피정은 쉬어갑니다.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아름다운 황혼의 삶: 11/18(수)~19(목)
 예수마음기도[4박 5일]: 12/26(토)~30(수)
 예수마음기도[8박 9일]: 12/26(토)~1/3(주일)
 영신수련[4박 5일]: 12/26(토)~30(수)
 영신수련[8박 9일]: 12/26(토)~27년 1/3(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교육 · 모집 ▶▶

향심기도 소개강의

일시: 11/5부터 매주(목) 14시~15:30 [4주간]
 장소: 영성센터 A312호 (구/계성여고)
 주제: 향심기도 / 내용: 소개강의
 강사: 김동춘 신부(서울대교구)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 (4회)
 문의: 010-4565-8898 서울대교구 사목국 향심기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심포지움 안내

일시: 11/7(토) 14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주제: AI와 인간
 대상: 관심 있는 누구나(참가비 없음)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대학교 2027 전기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접수: 11/2(월)~13(금) 17시
 전형: 12/7(월) 14시
 문의: 02-3147-8156 교학팀
 02-3147-8664 조교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피나음악원: 매주(금) 10시
 문의: 010-9842-8818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일시: 10/26(월)~11/20(금) 17시까지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문의: gsc.catholic.ac.kr

2027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 학생 모집

내용: 2027학년도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
 학생 모집(학력인정 대안학교·여학교)
 모집 학년: 202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2학년
 2027학년도 중학교 2학년~3학년
 장학: 전액 무상교육(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무료)
 기간: 충원시
 참고: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novitas-s.goepg.kr 참조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피에타스 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성가대 경험 있는 65세 이하 교우
 장소: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설명회 안내

일시: 11/3(화) 17시~18시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DB101호 및 Zoom(온라인)
 내용: 전형안내, 전공소개, 질의응답 등
 참가방법: 현장참가 또는 Zoom 참가
 신청: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문의: 02-705-8668~9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8437

안내 · 기타 ▶▶

인천교구 성령쇄신 50주년 기념 성령대회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차게 하여라" (루카 14,23)
일시: 11/14(토) 9시~17시
장소: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 강당
1,2강의: 김재덕 베드로 신부
3강의 및 치유기도회, 안수식:
오웅진 사도요한 신부 (성령쇄신 지도 사제단)
파견미사: 정신철 요한세례사 주교
문의: 032-761-6301, 010-2857-3430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대전교구에서 위탁운영
치매전문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성사 생활 가능(사제, 수녀 근무)
문의: 041-950-1008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4일 엠마오

27년 3/30(화) / 비용: 599만원 (+2,500유로)
루르드 3박, 파티마 2박 포함 / 가톨릭 트래블
문의: 010-5464-0207, catravel.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예약접수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매일 11시 미사가 봉헌됨)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치: 하늘의 문 성당(인천 검단구 당하동764-1)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haneul.caincheon.or.kr)
문의: 032-765-7251 하늘의 문 성당

성심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1/16(월) 베트남성모성지(5일)
27년 1/11(월) 대만성지순례(4일)
27년 1/18(월) 일본 나가사키(4일)
27년 3/12(금) 메주고리에(9일)
27년 3/30(화) 대만가오슝순례(5일)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섬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오름·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연말연시피정(한라산): 12/31(목)~1/3(주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26(목)~28(토)
역새.올레길 포함: 11/13(금)~15(주일),
11/17(화)~19(목), 11/21(토)~23(월),
12/1(화)~3(목), 12/5(토)~7(월),
12/11(금)~13(주일), 12/19(토)~21(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2/8(화)~12(토) 베트남 다낭
12/18(금)~27(주일) [성탄특집]
독일-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18(월)~28(목) [특별기획] 이탈리아 미술관 투어
1/20(수)~23(토) 일본 나가사키
1/23(토)~30(토) 멕시코 과달루페에서의 일주일
2/1(월)~9(화) [구정연휴] 이탈리아 중부소도시
2/21(주일)~3/1(월) 이집트
문의: www.cpbctour.co.kr, 1551-1053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11/13(금) 홍콩, 마카오(4일)
11/2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2/1(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4(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5(화) 홍콩, 마카오(4일)
2/5(금) 말레이시아(동방 전교의 시발지)
(페낭, 말라카, 쿠알라룸푸르(5일)-구정연휴
2/6(토)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80만원)-구정연휴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https://blog.naver.com/ggreen1004>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30(월) 홍콩 심천, 마카오(4일)
1/11(월) 이탈리아, 파티마, 스페인(12일)
1/12(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12일)
1/18(월) 베트남 남부(사이공, 봉따우)(5일)
1/19(화) 이탈리아 일주(11일, 595만원)
1/19(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2(화)~12/26(토) 성탄 필리핀(195만원)
27년 2/2(화)~9(화) 멕시코 과달루페(565만원)
27년 3/6(토)~15(월) 영국, 아일랜드(610만원)
27년 3/12(금)~22(월) 발칸반도(메주고레)(480만원)
신청 및 문의: 02-2281-9070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2/9(수)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0일, 대한항공)
1/23(토) 스페인남부와 포르투갈(12일, 585만원)
1/26(화) 유럽4국 성모님발현지(12일, 대한항공)
2/11(목) 이탈리아일주(11일, 아시아나)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2026 순교자현양음악회 "신유박해" 공연

일시: 11/7(토) 17시
장소: 서울 여의도 KBS홀 본관
내용: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정기연주회
지휘: 이상희 모니카, 기획연출: 심준보 베드로
입장료: 2만원(예매할인)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WYD 의정부 교구대회 INSTAGRAM

WYD 의정부 교구대회

조직위원회



WYD 의정부 교구대회

봉사자 활동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심수녀회	11/14(토) 14시~17시	원효로 성심수녀회 본원	010-5303-1956(문자)
	투스핑 포교베네딕도 수녀회	11/1(주일) 11시~18시 (수시 면담)	서울 본원(돈암동)	010-7543-6364(문자)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7:00	월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화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	수, 목, 금	11: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8일 시몬: 장직수, 조준섭
다두: 최성복

- 11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고오용 루시아, 장세린 히브리토, 장원석 미카엘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11월 병자 영성체
일 시: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11월 성시간
일 시: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11월 성모 신신 미사
일 시: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공 지 / 단 체

- 본당 교우 가정 방문 일정
10월 27일: 4구역
11월 3일 -4일: 1구역

- 위령의 날 합동 위령 미사 접수

일 시: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
11월 2일(월)은 위령의 날입니다. 이날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봉헌은 10월 28일 수요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10/12 - 10/18)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2건 300,000원
주일헌금 892,000원
전교주일 2차 568,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헌금

송해영 200,000원 박정순 10,000원
김순희 10,000원 길명자 50,000원
정기정 100,000원 이동준 300,000원
심행희 5,000원
본당 성요한 희망순례단 200,000원

화답송



(후렴) 저 의 힘 이 신 주 님, 당 신 을 사 랑 하 나 이 다.